

진흥회 개사판

전자산업 통상전략 포럼 개최

본회 민간전자통상협력위는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관계자 및 통상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을 듣고 회원사 제위의 정책건의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표제건의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IMF체제하에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대외통상사안들을 점검하고 개편된 정부통상창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듣는 시간을 갖고져 "IMF체제하의 통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5회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아 래

- 가. 행사명 : 전자산업 통상전략 포럼
- 나. 일시 : 1998. 6. 19(금)~20(토)
- 다. 장소 : 수안보 상록호텔
- 라. 참석 : 해외영업, 통상, 기획 담당임원 또는 부서장
- 마. 참가비 : 8만원(자료, 숙식, 교통 등 전일정 포함)
(납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업은행 / 196-05-066523
- 바. 문의 : 국제부 통상과(T:553. 0941/7, ex. 261, 262, 263)
- 사. 내용 및 일정
 - 제1부 : 개회 및 주제 발표 6.19(금) 17:00~19:00
 - 17:00~17:10 인사말 / 전자산업진흥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 17:10~18:10 통상전문가 초청 강연 「Euro 貨 출범과 대EU 수출, 투자에 미치는 영

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투자정책실장 김박수 박사

18:10~18:30 질의응답

■ 제2부 : 패널 토의 6.20(토) 08:20~11:25

- 신정부의 통상정책 : 통상 교섭본부의 역할과 정책방향 /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팀 이시형 과장
-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제언 : 반덤핑조사시 단계별 정부, 기업간 공조 / 산업연구원 전문위원 고준성 박사

질의응답

- IMF 체제극복과 통상 : 사례로 본 IMF체제의 진행과 시사점 / 재정부 경제분석과 김석동 과장
- 경제구조조정과 M&A : 구조조정기에 기업 생존전략 측면의 검토 / 삼정컨설팅대표 윤영각 변호사

제12회 LA 국제 신기술 및 발명품전시회 출품자 모집요강

■ 전시회 개요

1. 전시기간 : 1998. 9. 4(금)-9.7(월) (4일간)
2. 전시장소 : LA 페사디나 컨벤션센터 (Pasadena Convention Center)
3. 주최 : Invention Services International Corporation
4. 후원 : 미국 중소기업청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한국참가

1. 출품목적

국내기업인 및 개인발명가가 개발한 발명 및 신기술 제품을 국제무대에 진출시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의 상품 및 기술수출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한다.

2. 출품주관 : 한국발명진흥회

3. 출품대상 및 자격

- 국내에서 내국인이 개발한 발명(고안) 신기술로서 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것에 한함)
- 신청서와 전시비용,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신청기간내 접수완료 하여야 한다.

4. 출품자 특전

- 개인 및 중소기업자의 전시회 직접경비(부스료, 통역비, 번역비)에 한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을 추천하며 연말에 정부예산범위내에서 안분조정하여 출품자에게 지급한다.
- 동 전시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발명품은 특허기술대전 및 발명장려관에 전시가능하다.

5. 출품자 모집

- 모집기간 : 1998. 5. 20(수) - 6. 20(토)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부 [TEL : 557-1077/8 (234, 237)]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1 발명회관 3층

정밀기술진흥대회

정밀기술진흥대회는공업발전법 제11조 (공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의 장려) 및 통상산업부 고시 제97-63호 ('97. 4. 21) 의거하여 산업의 고도화에 근간이 되는 정밀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관련업계에 보급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의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많은 업체들의 참가바랍니다.

1. 대회분야 및 참가대상

분 야	참 가 내 용	참 가 대 상	비 고
정밀제품 기술분야	정밀기술(가공, 조립, 설계, 합성, 분석, 측정, 제어 등)을 근간으로 하여 제품의 신기능 창출, 소형화, 다기능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실현한 개발제품 (예 정밀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제품, 정밀전기 전자제품, 정밀광학제품, 정밀소재제품 등)	전산업체	
정밀생산 기술분야	제품개발 및 생산에 응용되는 기술 중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기술이며 각 산업의 기반기술로서 장기간의 기술축적 및 Know-How를 요구하는 전문 단위기술. (예 : 정밀가공기술, 정밀합성기술 정밀제어기술 등)	전문기술보유 업체, 대학 및 연구소, Working Group	

2. 심사방법

- 현장 실태조사 : 주최기관 전문가
- 1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소위원회 심사
- 2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1차 심사 통과 업체에 대하여 심사 <출품 제품(기술) 발표회>
- 3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정밀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3. 주최 및 후원

- 주최 :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 후원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

- 추천기관 : 산업자원부 산하 단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22개 단체)

4. 참가신청 요령

- 참가신청서 1부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주최기관에 제출, 단, 비회원 업체는 직접제출 가능

• 참가신청 양식은 인터넷 <http://www.ktl.re.kr/itc/itc.htm> 또는 PC통신 나우누리 go ktl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과정 이외에는 비공개

큐슈지역산업기술명감 자료안내

'97. 6. 10(화) 전주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한·큐슈경제교류회의에서 양국은 중소기업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희망에 기초하여 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일본(큐슈)측은 한국과 거래를 희망하는 일본기업에 대한 산업교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큐슈지역산업기술명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술명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회 국제협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553-0941(272) 팩스 : 563-7371)

※ 기술명감 수록업체중 전자관련 협력희망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nima Electronics Co., Ltd.

- 업체정보
- 자본금 : ¥ 157,500,000
- 설립년도 : 1984 / 종업원수 : 65
- 업종 : 전기기계

- 인수·투자 희망업종 : 통신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 등

- 협력희망 형태 : OEM / 대리점 설치

- 연락처

- TEL : 092-865-3133 FAX : 092-865-3136

- E-mail : animaf@network.or.jp

- URL : www.anima.co.jp

2) Kangawa Shoji Co., Ltd.

- 업체정보

- 자본금 : ¥ 75,000,000

- 설립년도 : 1970 / 종업원수 : 50

- 업종 : 비제조업

- 인수·투자 희망업종 : 전자부품, 포장재료 등

협력희망 형태 : 한국제품 수입 및 판매

연락처

- TEL : 093-661-0360 FAX : 093-662-8552

3) Togami Electric Mfg. Co., Ltd.

- 업체정보

- 자본금 : ¥ 2,899,000,000

- 설립년도 : 1925 / 종업원수 : 627

- 업종 : 전기기계

- 인수·투자 희망업종 : 전기·전자관련

협력희망 형태 : OEM / 하청위탁 / 가공위탁 / 한국제품 수입 및 판매

- 연락처

TEL : 0952-24-4111

FAX : 0952-26-4594

4) Mansho Co., Ltd.

- 업체정보

- 자본금 : ¥ 10,000,000

- 설립년도 : 1958 / 종업원수 : 217

- 업종 : 전기기계

- 인수·투자 희망업종 : 전기·전자·수송기계 관련
- 협력희망 형태 : 기술이전 / 한국제품 수입 및 판매
- 연락처
- TEL : 03-3362-7611 FAX : 03-3368-8350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자유화일정' 사전 공개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대형 컬러TV 등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의 수입자유화 일정이 미리 공개된다. 또 이 제도가 철폐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선다변화 품목 도입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IMF와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완전철폐키로 한 데 이어 품목별 해제 일정을 미리 밝혀 수입절차의 투

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선다변화제도 배제대상을 대폭 확대해 투자유치를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입선다변화에 묶여 있는 88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일정은 다음달말 40개 품목의 해제공고 때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수입선다변화 대상으로는 승용차·캠코더 등 88개 품목이 남아있으며 다음달말 40개 품목, 연말 32개 품목에 이어 내년 6월말 남은 16개 품목이 해제돼 수입선다변화 제도 자체가 철폐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수입선다변화 해제폭을 확대해왔으나 대상품목은 매반기말 공고 직전에 가서야 발표해 일본업체들로서는 국내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품목별 수입선다변화 해제일정을 한꺼번에 밝히기로 함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전자·기계업체들은 한국시장 진출전략 수립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가시적인 진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